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기관지

제253호 [루계 제25031호] 주제 104 (2015)년 9월 10일 (목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 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
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청년중앙예술선전대공연 『태양을
따르는 청춘의 노래』를 관람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최봉해동지,
박영식동지, 리영길동지,
김양건동지, 리일환동지,
전용남동지를 비롯한 당파
군대의 책임일군들, 인민군장
병들, 군대와 사회의 예술단체
성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공연을 진행하게 된
출연자들의 가슴가슴은 청년
들을 키운 전우로, 최후승
리의 그날까지 혁명을 같이 할
젊은 주력부대로 불려주시고
참된 삶과 행복을 마음껏 누
려가도록 따뜻이 보살펴주고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열화와 같은 흡모심으로
하여 뜨겁게 끓어번지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인민극장관람석에 나오시자 관
람자들은 청년강국의 주인들이
라는 새로운 시대어로 청년들의
지위를 최상의 경지에 옮겨세워주시고
업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이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세상에
들도 없는 청년강국의 위용을 떨치며 최
후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500만 청
년전위들의 신념과 의지를 보여준 공연은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시를 드리
면서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소합창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가』,
『인민의 환희』로 시작된 공연무대에는
설화시와 남성독창 『금방석』, 재담
『청춘의 이름』, 하모니카와 혼성중창
『당을 따라 청춘들아 앞으로』, 혼성2중창
『우동불』, 어온금독주와 방창 『젊음
은 급행렬차』, 남성기타5중창 『우리
앞 날 밟다』, 극이야기 『500만의
신념』, 남성4중창 『가리라 백두산
으로』, 선동파독연 『청년혁명
학교』, 가무와 민족기악3중주 『우리
민족제일일세』, 혼성중창이야기 『체육
열풍좋다』, 선동극 『천백배로 복수하리
라』, 혼성중창 『전선행렬차』, 여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북파노래 『해안포
병의 노래』, 시이야기 『위대한 태양의
품』을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올랐다.

출연자들은 청년중시를 혁명의 제일
중대사로 일관하게 내세우시고 청년강
국건설의 만년기기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
과 이 땅에 청년사랑의 대화원을 펼쳐
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위인적
풍모를 격조높이 칭송하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키워주신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청년대
군이기에 우리 조국은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청춘의 활력으로 부강하는 청년
강국으로 온 세상에 찬연한 빛을 뿐릴것
이라는 확신과 백두산칼바람에 뜻을 달
고 광활한 미래를 향해 폭풍처럼 내달리는
열혈 청춘들의 전투적 기백과 랑만을
감명깊이 보여주었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청년운동사상과

청년들의 사상정신적 품모를
보여주는 출중한 공연을 진행
한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오늘 진행한 공연은 우리 당의
70년 역사는 청년중시의
역사, 불패의 청년강국을 일떠
세운 역사라는 것을 보여준
공연, 당에서 제시한 정책적
문제들을 민감하게 반영한
만점짜리 공연, 자신께서 청년
들에게 하고싶은 말을 다 담은
시대정신이 맥박치는 공연,
지금까지 본 예술선전대공
연중에서 최고의 공연이라고
거듭거듭 높이 평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이 언제나 승리의 한
걸음을 걸어올 수 있었으며 우
리가 혁사의 온갖 시련과 난
관을 이겨내고 혁명의 전위를
파 사회주의를 고수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당이 청년들을
혁명의 강력한 전위대로 키워
왔기 때문이라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
전의 선봉에서 진격로를 열어나가는
선군청년전위들의 고상한 정신도덕적
풍모와 진취적이며 무궁무진한 힘과
열정에 의하여 우리 조국은 온 세상에
청춘의 기상과 위력을 떨치며 승승장구
해나가고있다고 말씀하시였다.

2면으로 계속



에서 조선로동당의 민음직한 후비대,
척후대, 익축부대로 억세게 자라고 있는
선군청년전위들의 불굴의 기상을 파시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열광의 환호를 올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뜻한 답례를 보내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청년중앙
예술선전대원들이 청년들의 특성에 맞고
인식교양적의의가 큰 작품들을 가지고
선군청년문화를 창조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앞길에 차넘치는 영원한 태양의 축복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위대한 태양의 존함으로 빛을
뿌리는 우리 공화국이 자기의 탄생
67돐을 맞이하였다.

김일성, 김정일조선, 그 이름 조용히
불러만 보아도 우리 공화국의
창건자, 평도자들이신 절세의 위인들
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으로 가슴부풀어오른다.

승용해지는 마음을 암고 주체의
최고성지를 찾는 인민들의 물결에
실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금수산태양
궁전의 광장에 들어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 역사에서 처음
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이시며 백두산대국의 영원한
영성이시고 모든 승리와 영광의
기치이십니다.』

뜻깊은 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맞으
며 어버이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
을 뵙고 싶어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
의 절절한 그리움이 달아서 인가
대 원수별 빛나는 금수산태양궁전
광장의 틀물은 뜨겁게 열려져 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들어선 우리
에게 제일 먼저 인자한 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태양상이었다.

경진한 마음을 암고 불멸의 태양상
을 울려 톤수록 공화국의 존엄을 온
세상에 높이 펼쳐주신 우리 수령님
과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이 저절로
솟구쳐왔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차넘치는
절세위인들의 환한 솟음이 태양의
축복이 되어 쏟아져내리듯 유난히도
밝은 성지의 꽃꽃마다에 따
사로이 넘치고 있다.

그 따사로운 해빛을 받아서인 가
홍과 방을 국색, 일초를 비롯한
갖가지 꽃들이 금수산태양궁전광장
의 꽃곳에 아름답게 피여나 회한한
꽃주단을 펼치고 있다.

백송나무, 전나무, 종비나무를 비
롯한 여러 가지 종류의 나무들이 불
어오는 9월의 선돌바탕에 설碍이고
있다.

하지만 태양의 성지를 찾은 사람
들은 향기를 풍기는 온갖 꽃들을 끌
없이 설레이는 나무들이 펼친 수려
한 풍치에만 심취되어있지 않았다.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의 헌화가
그대로 느껴지는 듯싶은 성지의
꽃송이들마다, 나무 그루들마다, 꽂
고 푸른 하늘의 한점의 구름과 가벼
운 바람결조차 태양조선의 자랑
한 력사를 소중히 전해주는것만 같
아 누구나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
하였다.

이런 숭엄한 감정이 세차게 끊이
치는 속에서 우리는 손녀의 손목을
잡고 위대한 수령님들께 삶과 인사
를 드리고 나서는 만개대구역 장thon
1동의 류현주로인을 만났다.

수십년 세월 사회주의제도를 지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일컬었던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저도 어머니 우리 조국의 품속에
서 행복한 삶을 빛내여온 이 나라의
공민입니다. 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맞



고보니 수령님과 장군님 생각이 못
견디게 솟구쳐올라 금수산태양궁전
을 찾았습니다.』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불러오는 그의 이야기를
우리는 무심히 들을 수 없었다.

깊은 생각에 잠겨 우리는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상공에 펼칠 휘날리는
공화국기를 바라보았다.

공화국기발은 우리 공화국이 걸어
온 영광스러운 행로를 뜨겁게 전하
는 영광스러운 행로를 뜨겁게 전하
여주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강도 일제의 총칼에
신음하며 그 이름마저 빛을 잊었던
우리 조국이었다.

비로 이례한 조선이 어떻게 되어
위대한 나라로 빛을 뿌려있던가.

형일의 혈연단비를 헤치시여 조
국을 찾으시고 진정한 인민의 나
라를 일떠세워주신 우리 수령님의
현명한 명도를 떠나 결코 오늘의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 수
없다.

주체 37(1948)년 9월 9일
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그
것은 세계지도에서 빛을 잊었던 조
선인 주체의 나라로 솟아오르고 우
리 인민이 국가와 사회의 참디운 주
인으로 되었으며 그 누군가 감히 건
드릴수도 없는 힘있고 존엄있는 주주
적인 민으로 되었음을 알리는 획기적
사변이었다.

역사의 그날로부터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몽쳐
주체조선, 영웅조선의 위용을 높이
펼치며 남들이 보란듯이 이 땅에
부강한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

강국을 일떠세울수 있었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의 이르는
곳마다에서는 백두왕아를 주름잡
으시며 원수들을 견를 켜 하시면
백두산청년장군, 배앗겼던 조국을
찾아주시고 세계『희강』을 뽑내던 미
제와의 대결전에서 조국의 존엄을
지켜주신 민족의 은인, 이민워커를
지론으로 이 땅에 인민이 주인된
행복의 락원을 일떠세우신 우리
수령님에 대한 각사의 정이 뜨겁게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 군상들앞에 서있느라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인민군군인
들의 모습이 류달리도 우리 눈길
을 끌었다.

우리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돌아보며 우리 조국의 백승의 경통
이 위대한 장군님의 의하여 빛나게
되살아온 인민군군인들의 모습을
보니 혁명의 흥대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빛나게
발들어 온 것처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성취하고자 애달이 나라
천만장병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개와 가슴에
더워졌다.

군대를 둘이워 선군을 하지
않고서는 당과 국가건설을 제대로
할수 없을뿐아니라 인민의 행복한
생활을 꽂피워나갈수도 없다는것이
아버지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발들어
해치신 선군혁명령도의 깊에서 위대한
장군님께서 실장깊이 간직하신 철석
같은 신념이고 의지였다.

하기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지난
고난의 행군, 강행군시기 우리 인민
의 앞길에 준엄한 시련이 닥쳐왔을
때 자주적인 인민, 자주적인 근위병
이 되느냐, 또다시 제국주의의 식민
지노에가 되느냐라고 군임히 교시하
시며 나라가 강해 애인민들의 행복
끊길줄 몰랐다.

한 생활도 담보 할수 있다는 철의
신념을 지니시고 선군의 기치를 더
높이 쑤여드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쌓으신 선군혁명업적을 풀이
켜보는 우리는 대원수별을 옹위하여
서있는 군수들을 형상한 군상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군상들앞에 서있느라니 쉽게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는 인민군군인
들의 모습이 류달리도 우리 눈길
을 끌었다.

조국보위초소를 지켜
선 남다른 영예와 공지
를 암고 태양의 성지
를 찾아온 인민군군인
들의 모습을 보니
혁명의 흥대로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반드시
성취하고자 애달이 나라
천만장병들의 불타는
충정이 안개와 가슴에
더워졌다.

시간이 흐를수록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
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한생을 다 바쳐 지켜주
고 빛나여 주신 귀중한
공화국을 세우기 위해
맹세를 암고 찾아오는
인민군군인들의 대열이
끊길줄 몰랐다.

금수산태양궁전광장을 찾아 위대한
수령님들과 마음속대화를 나누며 충
정의 맹세를 다지는 사람들이 어찌
인민군군인들뿐이라.

우리는 각계층 인민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아 뜻깊은 9월의
하늘가에 자기들의 격동된 심정
을 진실하게 터치는 모습을 볼수 있
었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선군
시대를 빛내일 기념비적전죽물을
일미세우는 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한 자랑을

마감간체들을 원만히 보장해 주겠다
는 결의를 티울는 통령양금숙건공
장의 레금석동무, 위대한 수령님들을
언제나 못 잊어하는 인민들의 한결

같은 마음을 해 아리시여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의 휴식터들을 훌륭히
꾸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그
사랑을 언제나 가슴에 암고 어제날
병사시절처럼 혁명의 꽃을 계속 피
워나가겠다고 하는 락랑구역 동일
거리 2동의 특류영예군인 락랑성동
주민들이 웃는 얼굴을 빛냈다.

조선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선군
시대를 빛내일 기념비적전죽물을
일미세우는 건설장들마다에 필요한
학습과 조직생활을 잘한 자랑을

위대한 수령님들께 아뢰이고 우리
조국을 떠나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
로 자리날것을 다짐하는 청년남도
안주시 은덕고급중학교 학생들의 모
습은 우리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가족단위로 혹은 개별적으로 뜻
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
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들을 영원히
높이 냉다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의 강성국가를 기어이 일떠세울 불
타는 맹세와 당창건 일흔돐의 경축
대회장에 멋진하게 들어설 굳은 의
지가 비껴있었다.

태양의 성지에서 뜻깊은 공화국
창건기념일을 보내며 심장으로 터
치는 평범한 근로자들의 진정의 목
소리를 들을수록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혁명업적과 온애로운 사랑을
언제나 잊지 않고 수령님들의 자애로운
영상들을 늘 가슴에 암고 살도록 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더욱 절감하게 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 발드는
길에서 천만군민이 당창건 일흔돐
을 궂지롭게 마중하는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자랑한 로열선물들을
마련해하고자 있다고 생각하니 보다
위대한 태양의 레사가 풀리고 온 누리
를 밝게 비치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확신하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원수님
제주에서 이끌고 계시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 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을
진두에서 이끌고 계시기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
만이 있을것이라는것을.

글 본사기자 린정호
사진 본사기자 린학락



대성산혁명렬사릉, 신미리애국화환전정

화환

대성산혁명렬사릉,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에

화환

수령결사용위의 신념을 간직하고 총대로 한생을 빛내인 혁명가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생일

100

돌에 즈음하여

우리 혁명이 뒷을 올린 때로부터

장구한 세월이 흘렀다.

승리와 영광의 널리를 아로새겨온 그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혁명의 명도자에 대한 충성성을 투철한 신념으로 간직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쳐 옆혈투사, 참된 혁명가들의 영웅적 위훈이 금문자로 새겨져 있다.

혁명렬사 류경수동지의 한생도 수령 결사용위의 모범으로 떠나고 있다.

일제 통치의 암담한 시기였던 주제 4(1915)년 9월 9일에 태어나 어린 나이에 혁명에 참가한 때로부터 백두산위인들의 숨에서 혁명가의 한생을 빛내인 류경수동지의 생애는 혁명가는 어떤 신념을 지녀야 하며 혁명가의 삶은 무엇으로 하여 끝났을까를 보여주고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류경수동지를 추억하시면서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였다.

『혁명가의 신념과 의지를 두고 르를 때마다 나는 언제나 그 전열에 류경수와 같은 사람들을 세우고 군 한다. 자기 수령이나 지도자의 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신념을 고수하기 위해 학생을 끌어들여 걸어가는데서 류경수는 만사람이 따라붙을 만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신념은 혁명가의 중요한 표징이다. 뿐만 아니라 거울을 생각할 수 없듯이 신념을 미난 혁명가의 삶이 있을 수 없다.

일제기 막국노의 운명을 빼자리에 체험한 류경수동지를 혁명적 신념을 소유한 불굴의 혁명투사로 기워주신 분은 위대한 수령님이시였다.

남달리 학교에 불었던 류경수동지에게 있어서 어르신들의 추억이란 나무집을 지고 장에 갔다올 때마다

사립학교 창문에 푸그리고 앉아 나

무가치를 들고 교원이 칠판에 쓰는 글을 열심히 따라쓰며 글을 익히던 그 역사의 갈피마다에는 혁명의 뜻을 품고 결연히 투쟁에 나섰으나 옮겨온 데도 자에게 어느 한 차례에 가서 헌원력을 만나고 올해 대한 파업을 주시였다.

류경수동지는 이 무렵을 세운 데에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에게 어느 한 차례에 가서 헌원력을 만나고 올해 대한 파업을 주시였다.

류경수동지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주제 34(1948)년 8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몸가까이 부르시여 땅고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꾸밀 때에 대한 영예로운 파업을 맡겨주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키면서 류경수동지에게는 이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기다려실 것이라고 하면 서 사령부원자리를 향해 주지 않는 이유로는 류경수동지의 가슴을 나누어내려갔다. 그 어떤 영속에서도 자기 사령판을 끌까지 밀고 따르는 절대불변의 신념이 없이는 선뜻 내릴 수 없는 결심이었다.

그 근처에서 류경수동지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남겨놓으신 대원을 만날 수가 되었다.

이 이야기는 자기 령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성을 기초한 혁명신념을 간직하면 그 어떤 시련과 난관도 문제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깊이 새겨주고 있다.

우리가 릴을 끊은 사령판동지의 통락에 없다!

사령판동지를 잘 모시고 반들어야 우리는 조국의 해방도 이룰수 있고 자기 자신의 운명도 개척할 수 있다!

사령판동지 만큼 계시면 우리 는 이진다!

이것이 바로 류경수동지의 심장속에 굳게 자리잡은 신념이었다.

이번 투철한 혁명신념을 체질화한

전경관 혁명투사였기 때문에 류경수동지

는 한때 부대의 대장과 깊이 하다가

신념을 저버리고 적들에게 투항하여

첫날부터 위대한 수령님께서 계시는 혁명의 신념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여 남들

는 것을 자신의 첫째는 본분으로, 제일 생명으로 여기고 언제 어디서나 사령판동지의 신변 안전을 위해 청탁을 이 그대로 성세가 되고 방폐가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투를

는 성과적으로 결속하고 천보산일

대에 진출하시면서 때의 일이었다.

작들은 그때 천보산과 그 주변지구

에 『토벌』 무력을 집결하여 혁명군에 대한 대대적인 소탕전을 벌리려고 획책하였다. 류경수동지는 사령부로 쓰러지는 적들의 력량을 최대한으로 약화시키기 위해 옹근 사용통안을 둘러번번히 미시지 못하면서 가장 위험하고 중요한 싸움은 도맡아나았다.

주제 30(1944)년 이른봄에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국내에서 활동하

는 소부대들의 사업을 지도하시기 위해 류경수동지가 지원하는 중대와 함께 배두산일대에 나오신적이 있었다.

그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에게 어느 한 차례에 가서 헌원력을 만나고 올해 대한 파업을 주시였다.

류경수동지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주제 34(1948)년 8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몸가까이 부르시여 땅고부대를 조직하는 사업을 꾸밀 때에 대한 영예로운 파업을 맡겨주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우리 군대가 이제는 땅고부대까지 가진 현대적인 혁명무력을 강화발전시킨 후에 온 조건을 조치를 다 취하시였다.

술장사군으로 전락한 철자를 만났을 때 그 누구보다 격분을 금지 못해

하며 주지 없이 제포하여 혁명의 준엄한 침 심판을 내렸던 것이다.

류경수동지는 해방후에도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주제 34(1948)년 8월 어느 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서울해방작전에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여 1950년 7월 26일

동안이나 저지시키는데서 커다란 공적을 세운 류경수동지의 부대는 뜻밖에도 최고사령부와의 연계가 끊어지게 되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부대에 대한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억제의 대로에 다지는 길에서 저울수 없는 자우를 남긴 혁명의 원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류경수동지의 첫 땅고부대지구관으로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부드럽게 처리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높은 뜻을 받들고 전당, 전

국사업에서 특히 우리 혁명무력을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에 즈음하여

경축공연 중앙과 지방에서 진행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을 맞으며 중앙과 지방에서 경축공연들이 진행되었다.

공연장소들에는 주체적인 국가건설 사상과 거창한 혁명실천으로 공화국의 장구한 력사를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온 모든 수령 김일성同志와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 없는 경모의 정이 넘쳐흐르고 있다.

수도의 국립연극극장에서 혁명 연극 『탈에게서 온 편지』공연이 진행되었다.

식작은 광명이요 무기는 암흑이라는 생활의 진리, 사람은 암야 자주적인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빛내일 수 있다. 철리를 세어주는 연극을 보면서 관람들은 지식경제시대에 열심히 배우고 또 배워 부강조국건설에 적극 이바지해 나갈 애국열의 가슴 불태웠다.

평양교예극장에서는 공화국 창건 67돐경축 국립교예단 종합교예 공연이 있었다.

세 예교예 『쌍그네』, 『다각전회 비행』 등 재치있는 기교와 기백 넘친

를 통으로 조화를 이룬 다채로운 종목들은 명절을 맞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땀만을 더해 주었다.

평인북도에 출단파 도에 출신전대의 예술인들, 도안의 대학교원, 학생들이 출연하는 경축공연이 도에 출극장에 김정은동지에 대한 한 우리 군대와 인민의 열화같은 흠토의 정을 감명깊게 되었다.

녀성소합창 『내나라는 영원한 수령님 나라』, 여성독창 『말하라 선군길』, 여성3중창과 합창 『조국찬가』, 남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혁명의 년대기마다에 조국번영의 대서사시를 아로새겨오신 위대한 수령님들에 대한 인민의 담합 없는 경모심을 격조 높이 구가하였다.

운명도 미래도 다 말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조국의 품에서 보람찬 삶을 누리는 우리 인민의 궁지와 자부심을 담은 합창 『인민공화국 선조의 노래』, 여성3중창 『회날려는 꽃』, 여성독창 『내가 지켜선 조국』, 여성3중창 『우리 삶색기』, 여성독창 『위대한 내나라』를 비롯한 종목들은 판람들의 질진을 받았다.

2. 16강계고등예술전문학교 교원, 학생들은 자강도에 출극장무대에 경축 공연 『원수님 모시여 빛나는 우리 조국』을 펼쳐졌다.

녀성독창 『우리 원수님』, 『고백』, 여성5중창 『회망님원 나의 조국이』, 혼성중창 『사랑하노라』 등의 종목들은 혼연의 굳은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경축 청년학생들의 무도회가

9일 수도 평양과 각지에서 진행되었다.

평양체육관, 개선문광장을 비롯한 평양시내 무도회장들은 백두의 선군혁명을 높이 모시고 강성국가건설의 전구마다에서 선봉대, 돌격대의 영예를 펼쳐나가는 크나큰 궁지와

자부심을 암고 뜻깊은 공화국 창건일을 경축하고 있는 청년학생들을 흥성이 있다.

명절일색으로 단장된 무도회장들에 『조선의 행운』의 노래가 울려퍼지자 아름다운 춤바다가 펼쳐졌다.

참가자들은 주체적인 국가건설사상

파거장한 혁명실천으로 이 땅우에

근로인민의 새세상, 진정한 인민의 나라를 세우고자 자주, 자립, 자주로 존엄 떨치는 사회주의 강국으로 빛내여 주신 위대한 김일성同志와 김정일동지에 대한 칭송없는 경모의 정을 암고 열정적으로 춤을 추었다.

참가자들의 끝없는 땀만과 열정으로 끓어번지는 무도회장들에 『꽃놀이』, 『흘러라』, 『영양의 사계절』을 비롯한 경쾌한 노래들이 힘되어 울려퍼져 무도회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켰다.

선군의 내 조국, 백두산대국의 배승의 역사와 전통을 대를 이어 빛나게 이어갈 열의를 암고 참가자들은 『전선에서 만나자』, 『승리는 대를 이어』 등의 노래에 맞추어 춤을 세차게 일으켜나갔다.

『조선청년행진곡』으로 끝난 무도회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상과 영도를 충직하게 발들어 청년강국의 위용을 힘 있게 펴며 주체의 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언제나 끝까지 나아가려는 선군청년전위들의 철석의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이날 각 도소재지들과 시, 군들에서도 청년학생들의 경축무도회가 있었다.



- 평양 대극장 앞에서 -

사회주의 국가건설의 위대한 모범을 창조하신 절세의 애국자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기자회견에서 강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창건 67돐경축 제일본조선인 축하단 단장인 훈민종교총련감사위원회 위원장이 9일 조선중앙통신사와 회견하였다.

그는 우리 공화국은 전진한 인민의 나라, 자주적인 사회주의 국가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공화국 창건일을 맞는 이 아침 우리 모두의 가슴은 위대한 김일성同志의 위대한 김일성同志에 대한 칭송 없는 그림과 감사의 정으로 부끄러워고 있다.

공화국의 역사는 절세위인들의 명도밀에 청조와 건설의 자발한 성과를 수놓으며 인민들에게 참된 삶과 희망을 마련해 준 성스러운 역사이다.

위대한 김일성同志께서는

일찌기 항일대전의 나날에 독창적인 인민정신건설로 선을 내놓으고 그 실현을 위한 헌신을 경험을 창조하였다.

그 이께서는 이에 토대하여 해방후 전진한 인민의 나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세워온 김일성同志의 세세년년 빛을 뿌리도록 하여주었다.

연회에서는 허종만의 조선인민대학원 교수들이

